

부산 BTS콘서트 바가지 숙박요금 못 받는다... 강력 제재

온라인 숙박요금신고센터 운영
신고 후 7일 내 소관부서 답변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등 조치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 개최까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불공정 숙박거래에 대해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와 자정 활동 캠페인을 병행한다.

우선, 콘서트 개최 전후 숙박시설의 숙박비 과다요금 등의 불공정 숙박거래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콘서트 개최일인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숙박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콘서트 개최 전후 부산시 숙박시설에서 계시된 요금과 다르거나 과도한 숙박 요금을 요구받았다면, 부산시 누리집의 숙박요금신고센터 전담창구를 통해 해당 업소를 신고할 수 있



부산시가 BTS 부산콘서트를 앞두고 숙박 및 외식부문의 불공정거래를 강력 제재키로 했다. /부산시

으며, 7일 이내 숙박시설별 소관부서를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신고내용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시한

숙박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효과적인 현장점검을 위해 신고시 신고

자 연락처, 업체명, 불공정 숙박요금 내용 등의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한편, 부산시와 숙박·외식·휴게·제과업 등 위생단체 4곳은 15일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범국가적 메가 이벤트인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고, 최근 논란으로 형성된 부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업계와 영업주들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시는 위생단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해 관련 업계와 소비자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산업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

창원시는 산업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선발한 산업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산업관광을 비롯한 창원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산업관광해설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태도, 해설 안내 기법, 관광객 유형별 접근 전략, 관광객 안전사고 대처요령 등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현장 교육도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첫째 날은 마산자유무역지역, 두산에너빌리티, 무학국제이뮤지엄 등을 방문해 창원의 산업발전 역사와 생산공정을 이해한다.

/창원(경남)=장병호 기자

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이자지원

목포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전라남도도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인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주택을 구입했거나 예정인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에서 통과한 세대이어야 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양교육지원청 농촌 찾아 일손돕기 실시

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일월면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영양교육지원청 직원 25명은 고령으로 인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김모씨농가를 위하여 일월면 주곡리에 위치한 5,102㎡ 규모의 고추밭에서 고추를 수확했다.

이경 영양교육장은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울주군 영남알프스 스포페스타 개최

울주군 상북면 주민들이 영남알프스 일대에 1만평 규모의 메밀꽃밭을 조성해 '영남알프스 스포페스타'를 개최한다.

영남알프스 숲길 사회적협동조합은 오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96-3번지 일대에서 영남알프스 스포페스타를 진행한다.

앞서 상북면 주민들은 울산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영남알프스 공정여행을 준비했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국 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쌀값 안정대책 마련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개 도지사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대책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쌀값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과 함께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9월 5일 기준 16만 4,740원/80kg을 기록했다. 비료와 농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연일 폭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에 쌀주산지 8개도(경북,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종고



농협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쌀포대

를 겪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전남도, 꼼꼼 계약심사로 279억 아꼐다

타 지역 제품 전환 실적도 늘어

전남도가 상반기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사업비 279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에 따르면, 계약심사 제도는 도와 시·군 등에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835건의 사업을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 279억원을 절감했다. 여기에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한 106개 제품 60억원어치를 도내 생산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토기업에 도움을 줬다.

타 지역 제품 전환 실적은 2019년 4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29억원으로 2년 만에 5배 규모까지 늘어났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진도토요민속여행 누적 관광객 38만명

올해로 25년째... 상설공연 활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클럽인 진도군에서 올해로 25년째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공연 횟수가 900회를 훌쩍 넘어 벌써 1,000회 공연을 앞두고 있는 등 대한민국 민속의 보고로 자리를 자리매김했다. 특히 해외를 비롯 전국 순회공연까지 포함하면 공연 횟수는 1,400여회가 넘는다.

지금까지 38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 진도토요민속여행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예술감독 김경호) 창단 후 지난 1997년 4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25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진도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이다.



특히 진도토요민속여행은 진도의 멋과 흥, 한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진도의 문화예술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견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보배섬 진도군은 아리랑,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국가무형문화재 5종과 진도아리랑 등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7종을 비롯 토속적인 민요와 민속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울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적극'

울산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 민원 ▲세무공무

원의 법령 위반이나 재량 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권리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한다.

시청과 5개 구·군에서 모두 납세자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 중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울산=장병호 기자